Fund Analyst 김후정
02-3770-3605 / hujung.kim@yuantakorea.com

글로벌 자금, America First

1. 신흥국 위기설은 신흥국 관련 펀드에 부정적

- 중국의 무역전쟁 이슈와 신흥국의 통화 급락으로 신흥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 증대
-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와 주식 ETF 자금 유출 지속
- 신흥국주식펀드와 ETF 자금 유출 진정

2. 글로벌 자금은 미국으로 쏠림

- 2분기 이후 글로벌 자금은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으로 움직임. 8월 미국 주식 ETF와 펀드로는 주간 평균 25.6억달러 유입
- 유럽 주식펀드와 주식ETF는 브렉시트, 미국과의 무역전쟁 등으로 3월 이후 자금이 계속 빠져나감
- 일본주식펀드로는 소폭 자금 유입

3. MSCI EM 지수의 중국 A 주 편입 영향은 제한적

- 신흥국에 불안감이 커지면, 신흥국 펀드 안에서 국가별 비중(펀드 단순평균) 조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올해 들어서는 MSCI EM 지수에 China A가 편입되면서, 신흥국 펀드 안에서 중국 투자 비중 2.6% 증가
- 같은 기간 신흥국 펀드 안에서 한국 비중은 0.1% 늘어나, 중국A주의 지수 편입에 따른 리밸런싱 충격을 일정 부분 흡수한 것으로 판단

1. 신흥국 위기설은 신흥국 관련 펀드에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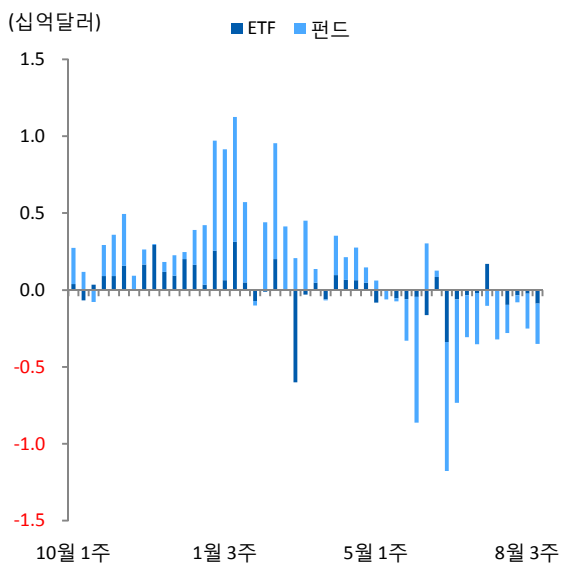
미국 주식 시장이 역대 최장 기간 강세장을 이어가면서 글로벌 투자자금의 미국 시장 쏠림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이슈와 아르헨티나와 터키 등 신흥국의 통화 급락으로 신흥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신흥국 주식 관련 펀드와 ETF의 자금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와 주식 ETF에서는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물론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순유출규모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유출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신흥국주식펀드는 7월 중순 이후부터는 자금 유출이 진정되면서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순유입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자금 유입이 이어지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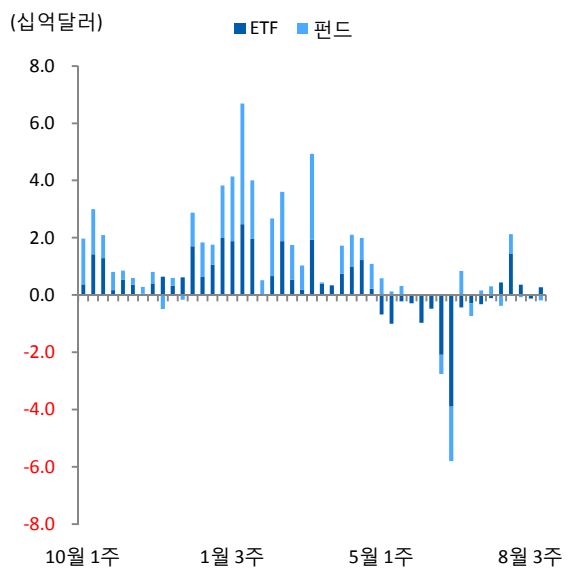
터키와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의 통화 위기가 번지면서, 신흥국 위기설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달러 강세가 신흥국에서의 자금 이탈을 부추기는 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 흐름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챠트1]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와 주식 ETF, 5월부터 유출세



자료:Morningstar ,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챠트2] 신흥국 주식펀드와 주식 ETF, 7월부터 유출 진정



자료:Morningstar ,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글로벌 자금은 미국으로 쏠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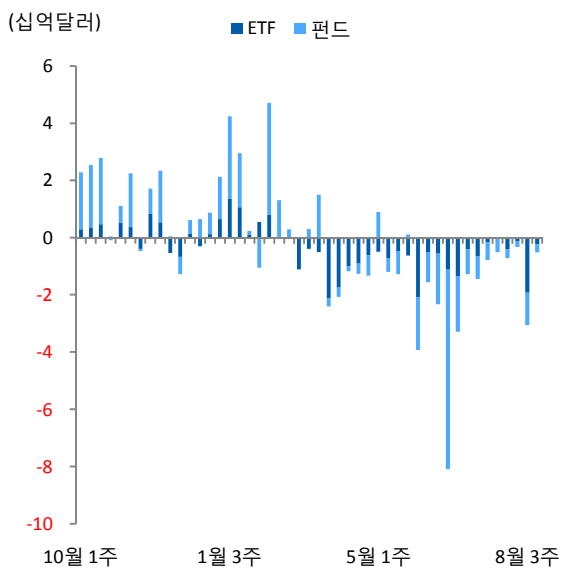
2분기 이후 글로벌 자금은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으로만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기술주의 주가 상승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미국 기업들이 가져간 결과이다.

유럽 주식펀드와 주식ETF는 브렉시트, 미국과의 무역전쟁 등으로 3월 이후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이탈리아 재정 악화 가능성으로 유럽 경제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다.

일본 주식 ETF는 소폭 유입을 이어가고 있으나, 일본주식펀드는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주식 ETF와 펀드의 8월 주간 평균유입규모는 약 2.2억달러 수준으로 미국의 8.8%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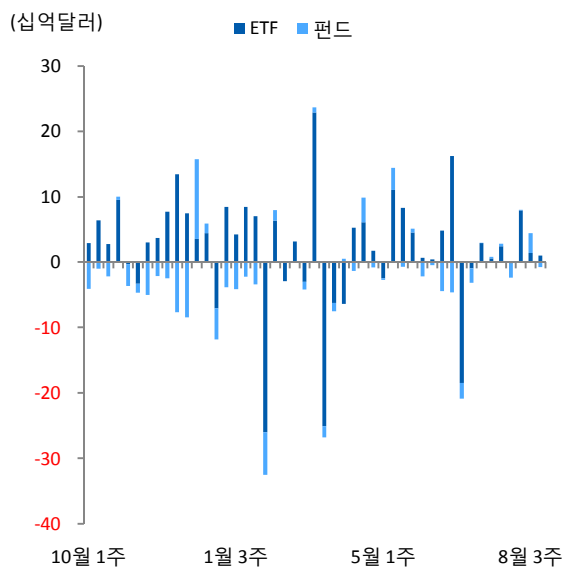
미국은 고용지표 등 주요 경제지표가 계속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8월 미국 주식 ETF와 펀드로는 주간 평균 25.6억달러가 순유입되었다. 주식 시장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미국주식펀드로도 자금 유입이 재개되고 있다.

[챠트3] 유럽주식펀드와 주식 ETF, 3월부터 유출



자료:Morningstar ,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챠트4] 미국 주식펀드와 주식 ETF, 유입 규모는 상반기보다 감소



자료:Morningstar ,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MSCI EM 지수의 중국 A 주 편입 영향은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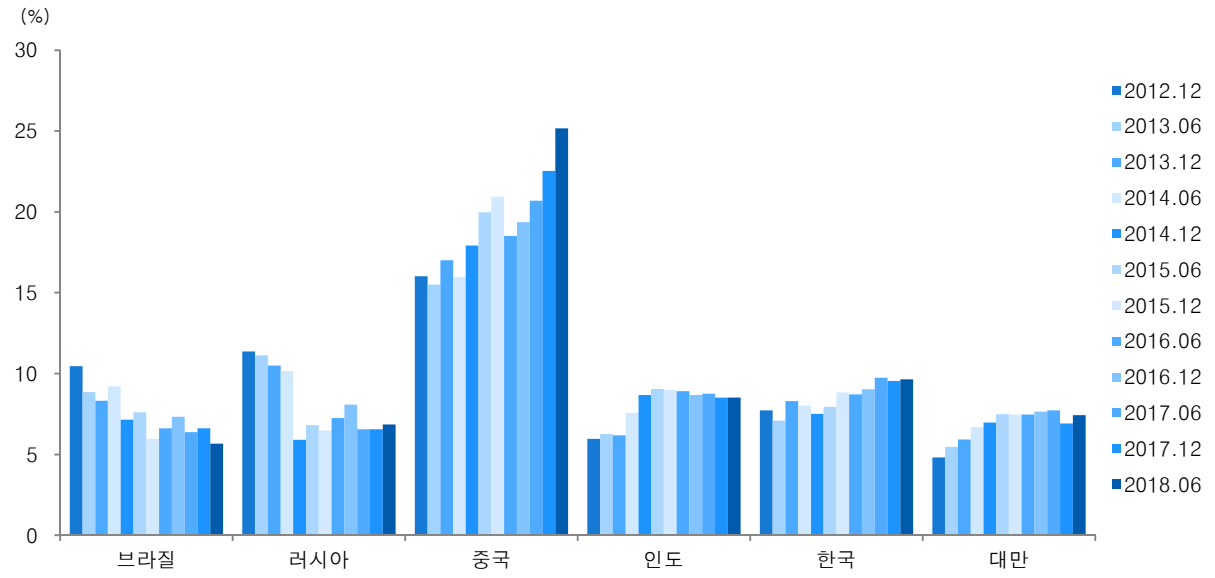
터키와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신흥국 경제 위기 우려가 커지면, 신흥국 펀드 안에서 국가별 비중(펀드 단순평균) 조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2010년 이후에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신흥국펀드 안에서 브라질과 러시아의 비중이 줄어들고, 아시아 신흥국의 비중이 높아졌다.

올해 들어서도 신흥국의 수요감소로 원유·비철금속 등이 약세를 보이면서, 신흥국 펀드 안에서 브라질 비중이 1% 줄어들었다. 인도는 8.5%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만과 중국의 비중은 각각 2.6%와 0.5% 증가하였다.

5월 MSCI 신흥국 지수에 중국 A주 226개 종목이 시총의 2.5%가 편입되었고, 9월초 2.5%가 2차 편입되었다. 이런 영향으로 신흥국주식펀드 내에서 중국의 투자 비중은 작년말 22.5%에서 25.2%로 늘어났다. 한국의 투자비중은 같은 기간 0.1% 늘어나 중국A주의 지수 편입에 따른 리밸런싱 충격을 일정 부분 흡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흥국 펀드 안에서 한국의 투자 비중은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향후 비중 확대 속도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챠트5] 신흥국 주식 펀드 중에서는 중국의 투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 인도와 대만, 브라질의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한국 비중 소폭 증가



자료:Morningstar ,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